

78212 104
개 415-3887
HAX: 571-5675

97-3-27

오늘의 생활양식, 무엇이 문제인가

박 영 숙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생존과 생활은 엄연히 다른 말이다. 생존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생물로서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생활이라는 말은 '인간다운 삶'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원시인들과 마찬가지로 일정량 이상의 영양분과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옷을 걸치고 있으며 잠을 잔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생존의 문제이다. 얼마전만 해도 텔레비전이라는 문화의 이기는 사람들의 상상속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텔레비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다. 텔레비전이 없어도 생존할 수는 있지만 생활에 불편이 따른다.

문화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원시인들을 상상해보자. 그들에게는 삶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입을까 고민할 여지가 없이, 그저 그때그때 허락된 것을 먹고 입는 것으로 생존을 이어갔다. 삶의 양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던 그 때, 문화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산의 능력이 신장되면서 삶의 양식에는 선택이 필수요건으로 등장하였다. 오늘날 먹는다는 행위는 배를 채우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맛의 어떤 것을 어떤 분위기에서 먹는가 하는, '엄청난' 선택의 문제가 따른다. 배를 채우고 생명을 영위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 아니, 어쩌면 그것과 무관하기조차 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물론 당대 생산력의 한계, 각자의 경제적 한계가 선택의 폭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이제 인간은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각자의 선택의 문제라면, 결국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각자의 몫이 된다. 바로 그렇게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 즉 생활양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른다. 미래를 관심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문화를 죽음의 문화라고 한다. 생명의 문화로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한 인류에게는 파멸이 다가온다는 것이다.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즉 우리의 모든 생활은 그 무엇인가를, 그것이 자원이건, 상품이건, 정신적 생산물이건, 공간이건, 시간이건, 혹은 그 무엇이건 간에 소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을 어떻게 소비하는가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표 청바지를 입고 △△표 신발을 신어야만 또래집단에서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것은 그 청바지나 신발이 그만큼 편하고 질기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소비가 그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미 사라지고 소비양식이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소비는 이미 절대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내가 소비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든다는 사실은 잊혀져가고 있다. 내가 '선택한' 생활양식이 다른 사람의 불가결한 생존권조차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환경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은 소비하는 행위에 따라 변화한다. 즉 훼손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을 인간 중심으로 변형시키고 적응시키려는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훼손하고 있는 환경은 나와 같은 시간에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의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남용하는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의 것을 앞당겨 소비하는 것이다. 내가 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의식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타인의,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몫을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 생활양식에 대해 반성해 보아야 할 때이다. 혹시나 더 많이 소비하는 문화, 더 화려하게 소비하는 문화를 우리가 동경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직시해야 할 문제는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세계자원을 소모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다소비국가의 생활수준을 추구하는 한 지구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12억 인구의 중국이 기존의 발전모델에 따라 경제성장을 하여 국민 1인당 소비수준이 로스앤젤레스 빈민층의 그것에 이르면 지구 만한 행성이 4~5개 더 필요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자원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다소비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자연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취함으로 인해 부존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자원고갈의 문제라고 하고 환경의 자정능력을 초과해서 지나치게 많은 폐기물을 환경계에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세계의 인구가 오늘의 각기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류는 파멸을 면키 어렵다.

우리모두는 지구환경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파수꾼이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해도 지구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자기의 선 자리에서 작은 일이라도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는데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풀린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지구환경보전의 표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생활이란 우선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다. 전기한등, 종이한장, 물한컵 아끼는 생활이다. 쉽지 않다. 그래도 해야 한다.

자연자원은 우리가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서 빌려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고이 되돌려야 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